

## 11학년들이 겨울방학과 봄에 해야 할 일



지금 11학년들은 이번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입시 전선의 최전방에 서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11학년들에게 대학입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11학년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 이번 겨울방학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 ■ 독서에 매진하라

독서와 글쓰기는 학습에 있어서 기본이다. 밥을 먹어야 기초 체력이 유지되는 것처럼 독서를 해야 기초 학력이 유지된다. 거기에 글쓰기는 학습 능력을 더 끌어올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독서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성적 향상이 쉽지 않다. 미국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분당 600~1,000 단어를 읽을 수 있는 독해 속도를 가져야 한다. 이는 독서능력지수(렉사일 지수, 미국 교육 연구 기관 'Meriametrics'에서 개발한 독서능력 평가지수)로 볼 때 1,330 렉사일이 요구된다.

### ■ 희망 대학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

진학하고자 하는 희망 대학의 리스트를 작성해 본다. 고교 3년간의 GPA를 고려해 톱5 희망 대학을 정하고 각 대학별 입시 규정을 정리한다. 조기전형과 일반전형 지원서 마감일, 제출 서류, 수업료와 기숙사 비용 등을 꼼꼼히 정리해둔다.

톱5 대학을 정한 뒤에는 캠퍼스 투어를 다녀오면 좋다. 현재 거주지에서 다

소 면 곳에 위치해 있는 대학이라면 '플라이 인(Fly-in) 캠퍼스 투어'를 신청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항공료, 숙박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플라이 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별 '플라이 인' 지원 자격과 프로그램 일정이 다른 만큼 본인이 정한 텁 5 대학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 ■ GPA를 행겨라

아무리 특별한 활동 경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도 성적이 낮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대학이건 가장 먼저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내신 성적이다. 과거 9~10학년 성적이 다소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11학년 성적, 특히 2학기 성적을 올리면 된다. 미국 대학입시에서 에세이, 추천서, 특별활동 등 그 어떤 것도 성적을 대신하지 못한다.

### ■ 특별활동에서 리더십을 보여라

특별활동은 상위권 대학 합격에 결정적 요소 가운데 하나다. 지원 학생 거의 모두가 비슷한 학업적 기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액티비티는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 그러나 잡다한 나열식 액티비티가 아닌 리더십 등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가운데 리더십은 가장 중요하다. 액티비티를 하되 집중과 선택을 통해 학생의 색깔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 고교 성적 C는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등학교 성적(GPA)은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GPA는 그 학생이 얼마나 학업에 헌신했는지, 그리고 대학 수업을 잘 수행해낼 능력을 갖추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자신과 비슷한 프로파일을 가졌으면서도 C를 받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해서, 내가 들보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교육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즈(ADMISSION MASTERS)' (blog.naver.com/amseoulkorea)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가 고등학교에서 C를 받은 과목이 있을 경우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다.



리학 수업에서 C를 받은 것보다는 영향을 덜 끼칠 것이다.

### ■ 다른 성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가

한 과목에서 C가 나왔더라도 다른 과목들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면, GPA가 여전히 높을 것이다. 물론 타격이 있지만 C 하나로 인해서 'C 학생'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과목들에서 대체로 B를 받고 있다면, C는 GPA를 더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 ■ 과외 활동이 눈에 띌 정도로 훌륭한가

성적은 대입에서 분명히 중요하지만 '성적' 만이 고려 대상은 아니다. 입학 사정관들은 정말로 뛰어난 학생들을 찾는다. 보통 상위권 대학들은 성적과 과외 활동, 두 가지 요소를 다 들여다본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국제적 명성을 가진 체스 대회의 우승자일 수 있다. 또 소설을 써서 출판했는데 상당한 호응을 얻었을 수 있다. 이처럼 두드러진 성취를 가진 학생이라면 다른 지원자들과 확실한 차별화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이런 성취가 없는 지원자들과 비교할 때, 성적이 덜 중요하게 평가될 수도 있다.

사진=shutterstock

##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설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          |           |
|---------|----------|-----------|
| 크레딧 점수  | 1점 ~ 29점 | 30점 ~ 39점 |
| 매월 프리미엄 | \$499    | \$274     |

###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2년 현재 170.1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설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Extra Help 자격

| Income & Resources | Single   | Couple   |
|--------------------|----------|----------|
| Monthly Income     | \$1,719  | \$2,309  |
| Asset Limit        | \$15,510 | \$30,950 |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 예자)  
Lic# O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